

문학 속의 분열, 분열 속의 문학*

윤재환**

|| 차례 ||

- I. 서론
- II. 문학 속의 분열 - 치유의 레토릭(Rhetoric)
- III. 분열 속의 문학 - 욕망의 프로파간다(Propaganda)
- IV. 결론

【국문초록】

문학 속의 분열은 크게 내적 분열과 외적 분열로 구분할 수 있다. 내적 분열은 문학 작품 속에서 작자가 스스로 형성한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의해 내적으로 분열되어 갈등하고 충돌하는 것을 말하고, 외적 분열은 문학 작품 속 등장인물이나 집단 간의 서로 다른 욕구가 충돌하여 분열하는 것을 말한다. 외적 분열은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하는데, 다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의 분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문학 속에 등장하는 분열과 갈등은 분열하고 갈등하기 위해서, 또는 분열하고 갈등하는 현상을 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열과 갈등의 제시를 통해 치유와 통합의 더 높은 경지로 가기 위한 문학적 수사, 레토릭이다.

하지만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문학이 이와 같은 것은 아니다. 분열된 상태로 끝없이 갈등하고 투쟁하면서 대립 상대의 소멸과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는 분

* 이 글은 2021년 8월 6일 “국어국문학 속의 분열된 사회”라는 주제로 진행된 한민족 어문학회 제331차 학술대회에서 같은 제목으로 발표한 글을 원고의 분량 제한으로 인해 발표문에서 제시한 작품의 대부분을 삭제하고 수정한 것이다.

**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열린 문학도 적지 않다. 분열된 문학의 경우 갈등을 증폭하여 분열을 유도하거나 이미 분열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 경우 문학은 치유와 통합보다 선전과 선동이라는 집단 이익의 프로파간다로 기능할 수밖에 없고, 진영논리와 확증 편향에 의해 집단의 지지를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학은 분열된 상태로 끝없이 갈등하고 투쟁하면서 상대의 완전한 소멸을 추구한다.

현재까지 분열된 문학의 극복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일은 극복이 아니라 공존이다.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열된 문학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소멸될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극복이 아니라 공존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주제어 : 문학, 분열, 통합, 치유, 레토릭, 프로파간다

1. 서론

흔히 문학은 敎訓的(敎示的) 기능과 快樂的 기능을 가진다고 한다. 문학의 敎훈적(敎示적) 기능을 독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는 기능으로, 쾌락적 기능을 독자들에게 미적 향유나 즐거움을 주는 기능으로 규정한다면 문학은 인간이 삶에서 필요로 하는 정신적인 요구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학을 이렇게 규정하고 문학에 접근하면서 우리들은 많은 혼란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문학 속에 구현된 인간과 사회가 도덕적이거나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학 속에 묘사된 인간은 나약하고 힘없는 부조리한 존재이고 사회는 거대한 모순에 가득한 불합리한 세상일 경우가 더 많다. 문학 속에서 세상은 또 사회는 언제나 인간을 갈등하고 번민하게 만들며, 인간은 그러한 사회에 반항하고 저항하

며 대립한다. 본질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 지닐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한계에서부터 그러한 인간들이 모인 사회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인간과 사회의 치열한 대립에 이르기까지 문학 속에 등장하는 인간과 사회는 대체로 분열되어 갈등하고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문학의 기능을 교훈(교시)과 쾌락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양상은 현재의 문학으로 올수록 더욱 선명하다. 갈등과 대립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그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인간은 분열되어 끝내 좌절한다.

4차 산업 사회, 지식 기반 사회,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이야기되는 현재로 올수록 문학 속에 등장하는 인간은 더 많은 분열 속에 놓이고, 사회는 그런 분열을 부추긴다. 확장되고 발달한 지식을 기반으로 인간의 삶과 사회의 구조가 이상적으로 조합되지 못하고 사회 속에서 인간은 겹돌며 끼리끼리 무리 지어 대립하고, 사회는 그런 인간의 행위를 조장한다. 힘없고 약한 인간은 이전 어떤 시기보다 더 가혹한 사회 안에서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소외되고, 힘 있고 가진 이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을 억누르며 사회는 대립하고 분열된다.

문학을 현실의 모방이자 반영이라고 한다면 문학 속에 나타나는 이런 모습은 문학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문학 속에 이렇게밖에 인간과 사회를 묘사하고 구현할 수 없게 만든 인간과 사회 자체의 문제이고 더 본질적으로는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인간 자체의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로 올수록 문학 속에 드러나는 인간과 사회가 더 분열되고 갈등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과 그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가 이전 어떤 시기보다 더욱 첨예한 갈등과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학 속에 묘사되는 그와 같은 갈등과 대립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문학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문학의 존재 가치가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 확장에 있기 때문이다. 문학은 현실 사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 분열과 갈등보다 화해와 조화를 통해 인간을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어야 하고, 문학 속에는 그런 인간과 사회가 묘사되어야 한다. 만약 문학 속에 존재하는 분열과 갈등이 현실의 분열과 갈등을 재현한 것일 뿐이라면 그것은 문학으로 가치를 지닐 수 없다. 따라서 문학 속에 등장하는 분열과 갈등은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 확장이라는 그 너머에 있는 숨겨진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와 같은 관점에 따라 기술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문학 속에 나타나는 분열과 갈등이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는 전제 아래, 문학 속에 나타나는 분열과 갈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문학 속에 나타나는 분열과 갈등의 양상을 통해 그와 같은 분열과 갈등이 문학 속에 구현된 이유와 의미를 살펴본 뒤, 문학 속의 분열과 갈등을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종적인 지점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문학 속의 분열 - 치유의 레토릭(Rhetoric)

갈등과 대립은 상호 인과관계에 놓인 개념이다. 대립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갈등하기 때문에 대립한다. 그런데 갈등과 대립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속성상 갈등과 대립은 언제 어디서나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갈등과 대립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갈

등과 대립 그 자체가 아니라 갈등과 대립이 만들어 낸 최종적인 결과이다.

갈등과 대립은 갈등과 대립의 당사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의 제시와 이를 통한 통합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갈등과 대립이 해결되지 못하고 깊어질 경우 반드시 分裂을 낳게 된다. 특히 심화된 갈등과 대립은 필연적으로 개인과 집단, 사회의 분열을 야기하는데, 이 분열은 이후 다시 더욱 심화된 새로운 갈등과 대립을 견인한다. 즉 분열은 갈등과 대립의 결과이면서 다시 심화된 새로운 갈등과 대립을 이끄는 원인이 된다. 그런 점에서 갈등과 대립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결과가 낳게 되는 분열과 이후 심화되는 새로운 갈등과 대립 때문이다.

사건적으로 볼 때 분열은 “하나로 존재하던 사물이나 집단 또는 사상이 갈라져 나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분열은 구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增殖과 擴張, 발전과 진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하지만 분열이 갈등과 대립의 결과였을 때는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스코틀랜드의 심리학자 로널드 페어베언(W. Ronald D. Fairbairn)에 따르면 분열(Splitting)은 자아와 타자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하나의 형태로 통합해서 사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나타나는 일반적인 방어기제이다.¹⁾ 따라서 분열된 사람이나 집단은 통합적인 사고보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분열된 상대와 자신 또는 자기 집단의 행동과 동기에 대해 무조건적인 흑백논리(black-and-white thinking)나 이분법적 사고(all-or-nothing thinking)를 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갈등과 대립의 결과 나타나는 분열

1) W. 로널드 D. 페어베언 저, 이재훈 역, 『성격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3, pp 14~18.

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형성된 분열이 다시 갈등으로 이어질 경우 그 갈등은 이전보다 더 심화된 해소될 수 없는 문제로 남게 된다.

따라서 문학 속에 등장하는 갈등과 대립이 그 너머에 있는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며, 그 목적이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가치 확장에 있다면 문학 속의 갈등과 대립은 인간을 분열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 그것보다는 갈등과 대립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고 치유하며 통합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그러나 문학 속에는 수많은 분열이 나타난다. 문학 속에서 인간들은 갈등 속에서 분열되고, 분열된 뒤 더욱더 치열하게 갈등하고 대립한다.

문학 속에 나타나는 분열의 유형을 분열의 주체에 따라 정리해보면 크게 내적 분열과 외적 분열로 구분할 수 있다.²⁾ 내적 분열은 작자의 자아 분열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자의 자의식에 의해 일어나는 분열을 말한다. 따라서 내적 분열은 문학 작품 속에서 작자(화자)가 스스로 형성한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의해 내적으로 분열되어 갈등하고 충돌하는 양상으로 묘사된다. 작자(화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상반된 욕구나 대립된 가치들이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분열이라는 점에서 내적 분열은 대부분의 경우 인물 내면의 심리적 갈등으로 표현된다. 이와 달리 외적 분열은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집단 간의 서로 다른 욕구가 충돌하여 분열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분열은 대부분 등장인물을 중심으

2) 이 글에서 언급한 분열 주체에 따른 구분은 흔히 이야기하는 문학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갈등 구조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문학 작품 속 인물들 간의 갈등 구조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뉘고, 외적 갈등은 다시 인물 간, 인물과 사회, 인물과 운명, 인물과 자연 등 다양하게 구분된다. 하지만 분열 구조는 분열의 주체와 대상이 정립되어 대립해야 하기 때문에 외적 분열은 크게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의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로 표면화되는데, 다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의 분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내적 분열은 작자 스스로의 자의식에 근거한 분열로 자신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대상과 충돌하여 부조화를 이루거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근원적인 한계에 의해 좌절하면서 나타나는 정신적 분열로 볼 수 있다. 내적 분열의 경우 서정문학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분열과 갈등의 유형인데 여기서는 한시 작품 1수를 예로 들어 보도록 한다.

靈仙窟宅謝紛喧	신선이 사는 곳이라 시끄러움 물리치고
蘭若隔雲爲我隣	구름 너머 절간만 내 이웃을 삼았지.
竹葉醺薰窓外雪	창밖의 눈 속에서도 댓잎 짙은 향기 뿌리고
梅花漏洩山中春	산 속에 봄이 들자 매화 피어 흐드러지니
也知詩藻多閑趣	알겠구나 시 속에 한가한 정취 참 많아
寧有笑談沾俗塵	웃고 나누는 이야기에 어찌 속됨 있겠나.
我獨一身在泥滓	나만 홀로 한 몸을 수렁 속에 두고서
浮名只足勞心神	부질없는 명예에 몸과 마음 괴롭히네. ³⁾

이 시는 취금헌 박팽년이 쓴 <次武溪酬唱詩韻> 5수 중 마지막 시이다. 이 시에서 박팽년은 현실의 질곡을 벗어나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아와 국가와 임금에 대한 충절과 유가적 수양을 추구하는 자아로 분열되어 있다. 임금과 국가에 대한 충정으로 목숨을 바쳤던 節義의 화신 박팽년이지만 이 시에서 그는 현실을 벗어나고자 한다. 이 시에서 볼 수 있는 박팽년이 이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와 다른 인물인

3) 朴彭年, <次武溪酬唱詩韻> 5수 중 5수, 『朴先生遺稿』.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시에서 박팽년은 당시 그가 느꼈던 현실의 벽과 질곡으로 인해 현실을 벗어나 갈등 없는 꿈과 幻想의 공간으로 옮겨 가고자 했을 뿐이다. 하지만 박팽년은 끝내 옮겨가지 못하고 분열된 채 갈등한다. 그간 추구했던 삶의 자세와 학문에 의해 형성된 유가적 의식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⁴⁾

박팽년의 분열과 갈등은 현실에서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크면 클수록, 의지가 강렬하면 할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그것은 목표가 크고 의지가 강할수록 현실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곤경들이 더욱더 그에게 청정한 이상세계, 초월 공간을 갈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팽년이 할 수 있는 일은 분열된 자신의 갈등을 시에 담아 풀어내는 것뿐이다. 창작을 통한 감정의 카타르시스(Catharsis)가 분열된 자아를 통합하고 상처난 감정을 치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작품 속에서 이상세계를 기원하는 화자의 의식과 현실적 장벽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분열과 갈등이 깊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화자가 분열된 자신의 갈등을 시로 표출한 것은 이상세계에 대한 분열된 자아의 갈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면서 한편으로는 창작을 통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통해 분열된 자아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이처럼 작자의 내적 분열은 서정(시가) 문학에서 주목하는 대표적인 갈등과 분열의 양상이다. 그런데 내적 분열은 작품 속에서 작자의 상실과 좌절, 소외로 일어난 작자의 자아 분열과 그로 인한 심리적 갈등으로 묘사되지만, 독자에게는 분열과 갈등이 아

4) 윤재환, 「문학적 관점에서 본 醉琴軒 朴彭年-醉琴軒 朴彭年에 대한 文學的 接近을 위한 試論」, 『한문교육연구』 49, 한국한문교육학회, 2017. pp.367.

나라 그 너머에 있는 새로운 감동의 세계를 제공하고, 작자에게는 창작을 통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하여 분열된 자아를 통합하고 상처난 감정을 치유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내적 분열은 문학 속에 표현된 분열의 양상과 달리 통합과 치유를 위한 장치가 된다.

작자의 내적 분열은 작자가 외부 세계나 대상과 충돌하여 상실하고 좌절하며 소외된 결과 나타난 것으로, 이 분열은 의도된 주체적 분열이 아니라 상황에 이끌린 결과적 분열이다. 따라서 분열되기를 원치 않았던 작자가 작품 속에 분열된 자아의 갈등을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아의 분열과 갈등의 문학적 형상화가 분열된 작자의 자아를 다시 통합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문학 속에서 확인되는 작자의 내적 분열은 분열이라기보다 작자가 분열된 자아를 스스로 다시 통합하기 위한 수단이면서 분열되어 느낀 감정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문학적 레토릭(Rhetoric)으로 치유의 修辭라고 할 수 있다.

내적 분열과 달리 외적 분열은 대립의 상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내적 분열과 다를 뿐만 아니라 분열의 양상 역시 선명하다. 특히 개인과 개인의 분열과 갈등은 대부분 작품 안에서 주동 인물과 대립 인물의 갈등 구도로 나타난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의 갈등과 분열의 경우 선명한 분열 구조 속에 분명한 작자 의식이 드러난다. 특히 개인과 개인의 분열과 갈등은 선과 악,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억압된 자와 압제하는 자 등으로 유형화된 두 부류의 인물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각각의 인물은 개별화된 한 인물이라기보다 하나의 유형을 대표하는 인물로 轉義・擴張된다. 따라서 이 인물들은 각각의 집단이 지닌 전형화된 속성을 구현한다. 그런 점에서 작품 속 개인과 개인의 분열과 갈등은 집단과 집단의 분열과 갈등으로 의미가 확장된다.

예를 들어 「홍부전」에서 홍부와 놀부는 각각 전형성을 지닌 두 유형의 인물로 규정할 수 있다. 홍부는 가난한 無産階級으로 도덕성을 갖춘 선한 인물이고 놀부는 부유한 有産階級으로 탐욕에 가득한 악한 인물이다. 선과 악, 無産과 有産, 가난과 부유, 도덕과 탐욕 등의 대척적인 지점에 놓인 이들은 각자의 처지와 환경 그리고 부여된 성격에 따라 행동하는데, 이들의 분열과 갈등은 놀부의 일방적인 우세로 나타나지만 최종적으로는 홍부가 승리한다.⁵⁾ 선과 악의 분열과 갈등에서 대부분의 경우 악이 우세하지만 마지막 지점에서 선이 악을 누르고 승리를 쟁취하며, 다시 악을 포용하여 선으로 귀화시킨 것이다.

결국 「홍부전」에서 볼 수 있는 분열과 갈등의 구조는 선으로 표상되는 홍부의 승리와 놀부에 대한 홍부의 포용, 그리고 놀부의 참회와 선으로의 귀의를 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홍부와 놀부의 분열과 갈등은 최종적인 상황까지 유지되는 불변의 분열이나 갈등이 아니라 선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두 인물을 통합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선과 악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악이 강력한 힘을 지니면 지닐수록 최종적으로 악이 무너지고 선으로 귀의하는 통합의 상황은 독자에게 더 큰 감동을 준다. 따라서 「홍부전」에서 볼 수 있는 분열과 갈등은 홍부라는 선으로의 통합과 치유를 위한 방편이고, 홍부의 고난과 놀부의 악행은 통합과 치유의 순간 독자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기 위한 문학적 장치가 된다.

이와 달리 김동리의 「무녀도」는 무속 신앙과 외래 종교인 기독교의

5) 「홍부전」에 대한 연구는 상당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상일의 「〈홍부전〉에 나타난 인간 소외의 두 양상 -홍부와 놀부의 욕망을 중심으로-」(『고전문학과 교육』 2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4.)와 장경남의 「〈홍부전〉의 인물 형상 -경판본과 <연의각>의 비교를 중심으로」(『古小說 研究』 34, 한국고소설학회, 2012.) 두 편의 글을 참고하였다.

충돌로 인해 母子가 맞는 비극적인 파탄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무당인 어머니 모화와 기독교 신자인 아들 옥이의 대립은 샤머니즘 문화와 기독교 문화의 충돌을 의미하는데, 작품 속에서 이들은 통합되거나 치유되지 못한다. 그것은 작품 속에서 성경을 불태우는 모화를 저지하려던 옥이가 모화의 칼에 찔려 죽음을 맞고, 옥이의 죽음 이후 모화는 마지막 굿판에서 巫悅에 잠겨 물에 빠져 죽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무녀도」는 토속신앙인 巫俗이 서구 종교인 기독교의 충격 앞에서 몰락해가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더 넓게는 근대화에 맞서는 전통, 혹은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적 의식과 근대화나 변화의 대립과 갈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모화는 전통과 보수를 대변하고 옥이는 근대화와 변화를 대변한다. 이렇게 두 인물의 전형적 성격을 규정하게 되면 이들의 분열과 갈등은 종교적 갈등을 넘어서게 된다. 이들의 분열과 갈등은 시·공을 넘어 인간 사회에 존재하고 또 존재해왔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분열과 갈등이 된다. 옥이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인정하고 수용한 인물이고, 모화는 그와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소멸해가는 전통을 지키고자 했던 인물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본질적으로 분열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무녀도」는 옥이의 죽음 이후 마을에 예배당이 서고 아들의 죽음에 नी이 나간 모화가 巫悅에 잠겨 죽음을 맞이하자 홀로 남은 모화의 병어리 딸 낭이가 자신을 찾아온 아버지를 따라 집을 떠나 유랑 생활을 하며 무녀도를 그려 살아간다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옥이의 죽음 이후로 마을에 예배당이 섰고, 또 끝내 기독교를 거부했던 모화가 巫悅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을 기독교 혹은 변화나 개혁의 승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모화의 죽음 이후 그의 병어리 딸 낭이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유랑하며 무녀도를 그려 생활한다는 것은 근대

하나 변화·개혁의 물결 속에서도 전통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의 승리라고 할 수도 있다.

「무녀도」는 이렇게 상반된 시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어떻게 보아도 욕이와 모화의 분열과 갈등은 극복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녀도」에 나타나는 욕이와 모화의 분열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무녀도」의 분열은 진정한 분열 영원한 갈등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은 두 관점에서 답할 수 있을 듯하다. 첫 번째는 문학의 교훈적(교시적) 기능이다. 문학 작품은 일정한 질서와 인과관계에 의해 창조된 삶의 전체를 독자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여⁶⁾ 독자들의 행동을 교정하고 인식을 전환한다. 따라서 독자들은 「무녀도」에 등장하는 욕이와 모화의 죽음을 통해 변화나 개혁의 물결이 전통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비극적 결말을 막을 수 있을지 학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문학 치료의 관점이다. 문학 작품의 작품 서사를 통해 독자의 자기 서사를 온전하고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문학 치료⁷⁾라고 한다면 「무녀도」는 욕이와 모화 같은 분열과 갈등에 놓여 있는 독자들의 자기 서사를 건강한 방향으로 교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무녀도」의 분열과 갈등은 독자들을 교육하고 치유하기 위한 장치이다. 또 작품 속에서 분열과 갈등이 끝내 통합되지 못한 것은 감동의 진폭을 확장하고 교육과 치유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의도적 비틀기로 치유를 위한 문학적 레토릭이다.

「홍부전」과 「무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개인과 개인의 분열과 갈등은 고전문학 작품에서 현대문학 작품으로 올수록 점점 더 복잡

6) 송명희, 「문학의 치유적 기능에 대한 고찰」, 『한어문교육』 27,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2, p.21.

7) 정운채, 「서사의 힘과 문학치료방법론의 밑그림」, 『고전문학과 교육』 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p.167.

하게 조직된다. 「무녀도」에서 본 것처럼 작품에 따라서는 분열되고 갈등하는 인물들이 끝내 통합되지 않는 경우까지 나온다. 하지만 그와 같은 작품의 전개를 분열과 갈등의 재현으로 보고 말 수는 없다. 그것은 작품 속에서 분열과 갈등이 어떻게 묘사되었느냐에 관계없이 그 분열과 갈등이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치유와 통합이기 때문이다. 분열과 갈등의 정도와 표현은 작자의 선택과 역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개인과 개인의 분열과 갈등을 담은 문학 작품에서도 분열과 갈등은 통합의 세계를 위한 장치이자 문학적 修辭이다.

외적 분열의 또 다른 한 양상인 개인과 사회의 분열을 담고 있는 문학 작품은 대부분 대사회적인 저항과 대립을 중심으로 한다. 이 유형의 문학 작품에서 분열과 갈등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나 부조리에 대한 개인의 자각에서 시작하여 대립과 저항, 개혁의 추구로 점차 갈등과 대립의 범주와 진폭을 확장한다. 그런 점에서 이 유형에 해당하는 문학 작품들은 대부분 저항 정신, 개혁 의식을 작품의 주제로 한다. 또 이 유형의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분열과 갈등의 주체인 개인 역시 개별적인 인물이라기보다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 하나의 집단이나 계급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이 유형의 분열과 갈등 역시 한 개인과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라기보다 한 집단이나 계급과 사회의 갈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회와 갈등 관계 놓인 집단은 사회적으로 열등한 계층으로 일방적인 박해를 받는다.

예를 들어 「홍길동전」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대 사회의 부조리 고발과 새로운 사회의 추구라는 혁명성과 서민 정신을 담았다고 본다. 「홍길동전」의 기본 갈등은 출생 신분에서 오는데, 이 갈등은 가정 내의 갈등과 사회적 갈등으로 구분된다. 가정 내의 갈등은 출생 신분에 따른

호칭 문제로, 사회적 갈등은 신분에 따른 사회 진출의 장애로 나타난다. 이렇게 「홍길동전」은 주인공 홍길동이 개인적인 갈등의 원인인 신분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서 차별과 봉건적 신분 계급, 탐관오리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당대의 대표적인 저항문학 작품으로 인정된다.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은 출생 신분에 따른 차별을 인지하면서 갈등하기 시작하고, 이 갈등이 가족 안에서 해소되지 못하면서 홍길동은 가족과 분열된다. 분열된 홍길동은 집을 떠나기 위해 부친에게 하직 인사를 드릴 때 부친에 의해 가족과 통합되지만, 홍길동은 막혀버린 사회 진출로 인해 다시 한번 분열된다. 홍길동이 겪은 두 번의 분열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었고 일방적인 것이었으며 그의 삶 전체를 짓누르는 거대한 사회적 힘과 권력·제도에 의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홍길동은 이 운명을 해소하고 분열된 상대와 통합하기 위해 저항하여 마침내 통합을 이룬다. 홍길동의 갈등은 개인적인 문제로 시작되지만, 당대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 모든 사람들의 갈등으로 확장된다. 홍길동의 분열과 극복은 갈등하지만 분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갈등을 넘어 분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홍길동의 분열은 개인적인 신분 갈등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 갈등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홍길동은 사회에 의해 분열되었고 스스로 분열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소외하고 분열시킨 또 그래서 스스로 분열한 거대한 세상과 다시 통합할 수 있었다. 만약 홍길동이 갈등하지 않았다면, 갈등하더라도 분열하지 않았다면 홍길동은 자신을 분열시킨 세상과 다시 통합하여 갈등을 해소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홍길동전」의 분열은 통합을 위한 장치이자 과정이다. 따라서 홍길동의

분열이 크면 클수록 통합의 희열은 확장된다.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1970년대 산업화에서 밀려난 도시 빈민의 참상을 내용으로 한다. 이 작품은 사회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그래서 경제적 빈곤과 무력감에 빠져있는 인물들을 상징하는 난쟁이와 당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통해 1970년대 당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는 도시화로 인해 점점 더 벼랑으로 내몰리는 도시 빈민의 처참한 생활상과 노동환경, 주거 문제, 노동운동 등이 담겨 있는데, 그 바탕에는 현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작자의 비판적 시선이 깔려 있다.

이 작품은 시작부터 최저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빈민층인 난쟁이와 당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구도를 표면에 노출하는데, 난쟁이는 한 개인이라기보다 그와 같은 처지의 삶을 사는 소외된 가난한 민중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 작품은 난쟁이와 사회의 분열을 기본으로 난쟁이집단 즉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과 사회의 분열로 분열의 층위와 폭이 확장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무녀도」처럼 이 작품에서도 분열은 통합되지 않고 갈등은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난쟁이의 죽음이라는 결말은 분열이 더욱 심화되고 갈등이 더 커질 것을 암시한다. 더욱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현실에서 상처를 입고 패배한 인물로 묘사된 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그래서 꺾박받는 난쟁이집단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분열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작자는 작품 속 난쟁이 가족의 삶을 통해 이 시기의 빈부 갈등이 화해 불가능하게 된 과정을 제시했는데, 이는 당시 사회가 분열된 두 집단이 화해와 통합에 이를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작품 속에서 난쟁이가 빌려본 책이 『일만 년 후의 세계』라는 것과 결말 부분에 제시된 난

쟁이의 딸 영희의 대결 의지는 이 분열이 이후로도 계속될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만 본다면 이 작품의 분열은 사회 현상의 재현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분열이 지니는 裏面的 의미는 역설적으로 분열이 계속될 것을 암시하는 『일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의 제목과 난쟁이의 딸 영희의 대결 의지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이 두 가지가 현재의 분열이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끝내는 통합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통합될 때까지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작품 속의 분열 역시 「무녀도」의 분열과 같이 통합을 위해 기능하는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문학 속에 등장하는 분열과 갈등을 살펴보면 문학 속의 분열과 갈등은 분열하고 갈등하기 위해서, 또는 분열하고 갈등하는 현상을 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열과 갈등의 제시를 통해 치유와 통합의 더 높은 경지로 가기 위한 문학적 수사, 하나의 레토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굳이 문학 속에서 분열과 갈등이라는 수사를 사용하여 힘들게 치유와 통합이라는 이면적 의미를 찾으려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가 의문이 된다.

리처즈(I.A. Richards)는 문학의 효용이 즐거움에 있지 않고 상황의 실재를 확실히 파악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시는 갈등이나 혼란을 화해와 조화의 세계로 정제시켜 준다고 했는데, 정제된 시적 경험은 새로운 질서와 자유를 제시하며, 여기서 독자는 참다운 평정을 느끼게 된다고 보았다.⁸⁾ 또 아놀드(Matthew Arnold)는 문학이 인간 완

8) 최명규, 「문학의 기능과 효용성에 관한 역사적 고찰」, 『인문과학연구』 1, 국제대학

성과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⁹⁾ 이 주장들을 인정한다면 문학이 독자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완성된 세계나 이상적 세계를 제시하기보다 실재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여 이를 통해 독자들이 더 높은 세계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렇게 되었을 때 독자들은 스스로 인간과 사회를 보다 높은 경지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학은 감정의 카타르시스와 함께 인지적 통찰을 통해 인간을 치유한다. 인지적 통찰을 통한 지성적 정화는 문학이 지닌 예술적 성격과 인문학적 속성에 기인하는데, 여기에 기인한 삶에 대한 사유와 통찰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학 작품 속에서 일정한 질서와 인과관계에 의해 창조된 삶의 전체적인 모습은 독자들에게 경험하지 못한 결말을 인지하게 한다. 이는 삶의 과정 속에 있는 인간이 겪게 되는 혼란과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즉 문학을 통한 사유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문학은 본질적인 허구성으로 인해 독자에게 일어난 문제, 제시된 사건이 허구라는 것에서 오는 객관화와 안도감을 주어 깨달음과 통찰이라는 인지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¹⁰⁾

이렇게 본다면 문학 속의 분열과 갈등은 현실을 재현한 결과물이라면 서도 독자들이 문학을 통해 치유와 통합의 더 높은 이상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수사이자 문학적 레토릭이 된다.

인문과학연구소, 1982, p.118.

9) 최명규, 「문학의 기능과 효용성에 관한 역사적 고찰」, 『인문과학연구』 1, 국제대학 인문과학연구소, 1982, pp.114~115.

10) 송명희, 「문학의 치유적 기능에 대한 고찰」, 『한어문교육』 27,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2, pp.20~24.

3. 분열 속의 문학 - 욕망의 프로파간다(Propaganda)

문학 속에 등장하는 분열과 갈등은 분열되고 갈등하는 현실의 재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분열되고 갈등하는 현실을, 또 그 속에서 방황하고 좌절하는 인간을 치유하고 통합하기 위한 도구가 방편이다. 따라서 문학 속의 분열과 갈등을 접하면서 우리는 분열되고 갈등하는 사회와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좌절과 고통을 느끼고 통합을 통한 치유를 꿈꾸게 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문학이 이와 같은 것은 아니다. 분열된 상태로 끝없이 갈등하고 투쟁하면서 대립 상대의 소멸과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는 작품들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학 작품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 작품들을 앞서 살펴본 작품들과 같은 범주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리고 이 작품들을 진정한 문학 작품으로 볼 수 있는가.

이미 언급한 로널드 페어베언의 이야기처럼 분열이 자아와 타자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사고하지 못해 나타나는 일종의 방어기제라고 한다면, 분열된 집단의 의식은 기본적으로 상대 집단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이분법과 흑백논리에 근거하여 상대를 바라보고 평가한다. 그런데 분열이라는 의식과 행위가 방어기제에 해당한다는 것은 분열이 두렵고 불쾌하거나 욕구 불만의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행동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분열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상대의 위협이 그만큼 크고 자신의 위치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력한 상대의 위협에 대해 자신과 자신의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상대와 자신을 구분해야 한다. 그

리고 이렇게 구분된 사람들로 집단을 구성하고 구성원 간의 강력한 결속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강력한 결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대와 구분되는 자신들의 논리와 주장이 정당함을 역설하면서 상대의 주장과 논리가 지닌 문제점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은 문학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분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갈등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에서의 갈등은 사회 변동 과정의 일부로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고 언제나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갈등 상황은 언제든지 해소되어 통합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하지만 갈등이 중재나 해소의 장치를 만나지 못할 경우 심각한 분쟁으로 확장되어 갈등의 주체들은 끝내 분열될 수밖에 없다.

박영상이 정리한 사회갈등의 핵심 요소와 특성에 따르면¹¹⁾ 사회적 갈등은 기본적으로 권력이라는 중대하고도 공유할 수 없는 이권과 관계되고 그 이권을 확보하기 위한 적대 행위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적대 행위에 대한 적절한 중재나 해소의 장치가 없을 경우 갈등의 당사자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갈등 상황에서 문학은 중재나 해소의 장치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갈등을 증폭하여 분열을 유도하거나 이미 분열된 집단의 이익

11) 박영상은 사회갈등의 핵심 요소와 특성을 “1. 갈등은 최소한 두 집단을 필요로 한다. 2. 갈등은 최소한 자원, 사회적 지위, 권력이나 다른 중요한 가치와 같이 공유하기 어려운 이권으로부터 나온다. 3. 갈등은 상호적대적인 행위와 대항행위라는 집단 사이의 상호 작용을 필요로 한다. 4. 갈등행위에는 파괴, 상해, 중립화, 방해 혹은 상대방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고함, 분노와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 따라서 갈등하는 집단은 상호 간의 역량 소모를 강요받게 된다. 5. 갈등 관계는 언제나 권력을 획득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 6. 갈등은 언제나 그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6가지로 정리하였다. 박영상,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커뮤니케이션』, 『한국의 사회와 문화』 2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pp.154~155.

을 대변하기도 한다. 문학이 중재와 해소의 장치로 기능할 경우 문학은 치유와 통합의 도구로 작용하지만, 문학이 갈등을 증폭하여 분열을 유도하거나 분열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경우 문학은 집단 이익의 프로파간다(Propaganda)로 기능하게 된다. 물론 갈등의 과정에서의 문학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사회 구조와 갈등의 성격에 따라 문학의 기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특히 권력이 양분되어 어느 쪽도 지배적인 세력이 되지 못했을 때 문학이 상대적으로 더 큰 힘을 지니고 여론을 주도하여 갈등을 이끄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기본적으로 문학은 치유와 통합을 추구한다. 따라서 갈등의 와중에서도 문학은 통합과 치유를 추구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창작의 주체이고, 그런 인간인 작자의 성향에 따라 문학 속 치유와 통합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문학 속에 드러난 치유와 통합의 방향은 온전히 객관적일 수 없다. 따라서 갈등의 와중에서 창작된 문학의 경우 언제나 한쪽의 비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문학은 분열된 두 집단의 어느 한쪽에 영합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문학이 분열된 두 집단의 한쪽에 영합하게 되었을 때 문학은 편향성을 띠게 되는데, 이 편향성은 점차 당파성으로 확장되어 갈등과 분열을 심화한다. 따라서 이럴 경우 문학은 치유와 통합보다 선전과 선동이라는 집단 이익의 프로파간다로 기능할 수밖에 없고, 진영논리와 확증 편향에 의해 한 집단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학은 분열된 상태로 끝없이 갈등하고 투쟁하면서 상대의 완전한 소멸을 추구한다.

선전과 선동을 동일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선전이 상대적으로 주장의 논리적 구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크고, 선동이 인간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이 짙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정치적 혹은 사회적으

로 볼 때 선전과 선동은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여론을 조작하여 대중의 판단이나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대신 발화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재구성하고 전파하여 대상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지닌다. 또 어떤 주장의 장점 또는 단점만을 강조하여 특정한 인식을 전달하거나 퍼뜨리려는 의도를 가지는 일방적인 주장을 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그런데 이런 선전과 선동은 기본적으로 편향성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선전과 선동은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嗜好, 가치를 강화하거나 반복 확인시키기에는 유효하지만 새로운 인식이나 가치를 가지게 만들기는 쉽지 않다.

선전과 선동을 이렇게 규정하면 분열된 집단의 문학은 다른 집단을 향한 것이라기 보다 자기 집단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선전과 선동의 문학이 자기 집단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반대 집단의 열등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다양하게 과장될 가능성에 열려 있고, 감정적이고 기만적이며 비이성적이면서도 집단의 사고를 조종하여 그 집단의 힘을 소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된 집단의 문학은 자기 집단에 대한 선전과 선동을 중심으로 하게 되고, 이 선전과 선동은 그 집단의 이익이라는 욕구의 프로파간다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았을 때 분열된 집단의 문학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성향을 지닌다. 첫 번째는 분열과 갈등의 상대에 대한 비난이고 두 번째는 선전과 선동이다. 비난의 경우 대립 상대의 완전한 극복을 통한 상대의 소멸을 추구하는 것으로 갈등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상대에 의한 자신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 조선시대 당쟁의 와중에서 나온 상소문과 같은 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문학의 경우 객관적 사실에 정략적이고 감정적인 해석을 개입시키거나 분열하여 대립하고 있는 상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을 통해 상대의 완전한 소멸과 이를 통한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를 추구한다.

선전과 선동의 경우 갈등과 대립의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고, 자기 집단이나 상대 집단 구성원의 신념이나 정체성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해 혼란을 일으킬 때 주로 사용된다. 선전과 선동의 경우 상대 집단 구성원의 의식에 혼란을 주어 자기 집단으로의 전향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자기 집단 내부의 결속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유형의 문학 작품들은 정치적·이념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 혼란기나 새로운 정치·사회적 제도나 집단의 등장 초기에 주로 나타나는데, 특정한 인물을 絶代善 또는 신격화하거나 완전한 피해자로 묘사하여 집단의 일체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이런 문학 작품의 경우 내용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이념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작품 속에 갑작스럽게 정치적·사상적·이념적 성향을 노출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향은 이런 문학 작품들이 문학성보다 선전·선동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런 작품의 경우 미학적 관점이 아니라 선전·선동을 위한 도구적 기능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 문학이 지니는 감동이나 예술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분열된 집단의 문학은 기본적으로 목적성과 편향성을 지닌다. 이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분열된 집단의 문학은 분열된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자에게도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문학이 주는 감동을 통해 독자의 인식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기보다 제시된 내용을 독자가 일방적으로 수용하도록 요구한다. 이들이 문학 속에 일방적인 주장을 담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주장이 지닌 장점과 상대의 단점을 강조하여 특

정 인식이나 내용을 전달하거나 확산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분열된 집단의 문학은 예술로서 문학이 지녀야 할 예술성이나 목적으로 추구해야 할 인간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고려를 보이지 않지만 분열된 두 집단 구성원 각각에게 달리 인식된다. 즉 분열된 한 집단에 의해 창작된 문학이 다른 집단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그 집단의 구성원들에게만큼은 높은 수준의 미적 자질을 갖추고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뛰어난 예술 작품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상대 집단에 의해 부정되면 될수록 그 반대 집단의 구성원으로부터는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것이 분열된 집단의 문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이다.

4. 결론

문학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인간이 문학을 창작하지만 창작된 문학은 인간을 더 높은 세계로 인도한다. 인간은 그들에 의해 창작된 문학을 통해 감동하고 학습하며 스스로를 치유한다. 문학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학 속에 재현되는 인간의 삶도 이와 같은 기능을 위한 것이다. 삶의 질곡과 고통, 좌절, 비극이 문학 속에 고스란히 담기고, 문학에 담긴 그 많은 시련에 독자들이 스스럼없이 다가서는 것은 문학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문학 속의 분열과 갈등 역시 마찬가지이다. 분열이 분열일 뿐이고 갈등이 갈등 그 자체라면 독자들은 문학에 다가설 이유가 없다. 이미 너무나 많은 분열과 갈등을 그들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기에 독자들에게 분열과 갈등은 새로울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 독자들이 문학 속의 분열과 갈등에 주목하는 것은 그 분열과 갈등이 자신을 치유하고 통합하게 해 줄 것이라는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때문이다.

대부분의 문학은 이런 신뢰에 어긋나지 않는다. 문학 속의 분열 역시 분열을 통해 더 나은 세계를 꿈꾸게 하고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한다. 하지만 분열된 문학은 모든 독자에게 이렇게 작용하지 않는다. 한 집단을 위해 그들이 꿈꾸는 세상을 보여주고 찾아가게 한다. 이로 인해 세상은 더욱 분열되고 갈등하지만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이런 격화된 분열과 갈등은 분열된 문학의 의도 중 하나로, 분열된 문학이 추구하는 최종 목적지로 가는 과정의 일부이다.

완벽하게 객관적인 인간은 존재하지 않고,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무리 짓고 치우친 존재이기에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에 따라 휩쓸릴 수밖에 없다. 다양한 신념과 가치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의지에 부합하는 하나를 찾아 지지하고 열광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문학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기호에 부합하는 작품을 찾아 이에 몰두하고, 몰두하는 만큼 작품은 그에게 더 많은 희열과 감동을 주고 삶을 교정해 나간다. 비록 그 작품이 치우치고 편벽된 것이며, 그로 인해 세상이 더욱 쪼개진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을 원하는 사람에게만큼은 더없는 행복을 준다.

이런 현상은 현재로 올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다양한 인간의 욕구만큼 지식이 확장되고 정보가 증대하면서 늘어난 선택지는 인간을 분열하게 한다. 문학은 그런 인간의 기호를 쫓아가다가 점차 그런 인간을 선도한다. 분열된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 문학의 분열이지만, 분열된 문학으로 인해 인간의 분열은 더욱 심화된다.

이런 현상에 대한 극복의 목소리가 높지만 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애초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데 문학만 그래야 하는가 또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분열된 문학이라고 하더라도 한 집단에게는 또 원하는 독자에게는 최상의 문학이라는 반론, 그리고 누가 어떻게 분열된 문학인지를 판단하고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가 라는 회의는 분열된 문학의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한다. 또 분열된 문학의 등장이 인간의 분열에 의한 것이니 인간의 분열이 해결된다면 문학의 분열은 자연스럽게 극복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당연한 것이지만 역시 분열된 문학의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현재까지로 볼 때 분열된 문학의 극복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일은 극복이 아니라 공존이다. 극복이라는 의식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극복하고자 한다면 상대가 소멸되어야 하지만 분열된 문학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소멸될 수 없다. 이제는 극복이 아니라 공존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참고문헌】

- 박영상,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커뮤니케이션」, 『한국의 사회와 문화』 2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pp.154~155.
- 송명희, 「문학의 치유적 기능에 대한 고찰」, 『한어문교육』 27,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2, pp.20~24.
- 윤재환, 「문학적 관점에서 본 醉琴軒 朴彭年 - 醉琴軒 朴彭年에 대한 文學的 接近을 위한 試論」, 『한문교육연구』 49, 한국한문교육학회, 2017. pp.367.
- 이상일, 「〈홍부전〉에 나타난 인간 소외의 두 양상 - 홍부와 놀부의 욕망을 중심으로 -」, 『고전문학과 교육』 2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4, pp.235~236.
- 장경남, 「〈홍부전〉의 인물 형상 - 경판본과 〈연의각〉의 비교를 중심으로」, 『古小說研究』 34, 한국고소설학회, 2012, pp.65~66.
- 정운채, 「서사의 힘과 문학치료방법론의 밑그림」, 『고전문학과 교육』 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p.167.
- 최명규, 「문학의 기능과 효용성에 관한 역사적 고찰」, 『인문과학연구』 1, 국제대학인문과학연구소, 1982, pp.114~115, 118.

Abstract

The Split in Literature, Literature in Split

- Rhetoric and Propaganda, the Split of Literature of Unmixable -

Yoon, Jae-hwan

The split in literature can be divided into internal split and external split. Internal split refers to the split and conflict by the value or world view formed by the author on his own in literary works. External split refers to the conflict and split of different desires between characters and groups in literary works. External split is centered on characters. It can be divided into a split between individuals and individuals and a split between individuals and society. However, the split in literature is not presented as a phenomenon of split or conflict. It is a literary rhetoric that has a higher level of healing and integration through the presentation of split and conflict.

However, not all literature that we encounter is like this. There are many split literature that seeks to end the confrontation and complete victory while endlessly conflicting and struggling in a split state. In the case of split literature, it amplifies a conflict to induce a split or represents interests of already split groups. In this case, literature is forced to function as a propaganda of collective interests of propaganda and incitement rather than healing and integration, and to gain support of the group by the force of the logic of the camp and confirmation bias.

The split of literature seems impossible to overcome. Without the existence of an absolutely objective human being, split literature cannot be extinguished as long as humans exist. Thus, we must find ways of coexistence, not overcoming them.

Key Words : literature, split, integration, healing, rhetoric, propaganda

윤재환

소속: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insemin@dankook.ac.kr

이 논문은 2021년 8월 21일 투고되어
2021년 9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1년 9월 25일 게재 확정됨.